

이순신의 젊음

김송희

“이 한 번뿐인 젊음을 어찌할 것인가”

우당 이회영 선생이 스스로에게 물었다. 젊음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또한 누구에게나 한 번 뿐이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단 한 장의 도화지를 나는 어떻게 그려나갈 것인가. 그리고 지금, 그 한 번뿐인 젊음을 뜨거운 가슴으로 채웠던 한 사람의 삶의 흔적을 통해 그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

이순신, 조국 최대의 위기와 민족의 운명을 두 어깨에 지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이루어 내며 전설적인 기록을 남긴 장수. 그런 그를 버린 조선을 위해 또 한 번 드넓은 바다 위에 조선군의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한 장수.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말을 남기며, 백성과 조국을 위기로 몰아넣었던 끔찍했던 전쟁과 함께 하직한 장수. 적군이었던 일본에서도 ‘위대한 장군’이라 치켜세우기 주저하지 않는 장수. 이순신에게 ‘민족적 영웅’이라는 말은 결코 과하지 않으며, 하늘이 조선을 위해 내린 장군이라는 말 역시 그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듯하다.

그러나 난중일기를 통해 만난 이순신은 사뭇 달랐다. ‘성웅’이었던 그가, 위대한 장군이었던 그가 눈앞에 던져진 삶을 걱정하는 나와 같은 모습으로 내게 다가왔다.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어찌 천지에 나와 같은 사정이 있겠느냐’며 통곡하고,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듣고서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화가 네 몸에 미친 것이냐’며 텅 비어버린 가슴 속에 슬픔 외엔 담지 못한다. 또한 자신을 모함하는 자들에 대한 분노와 질타, 전사한 부하들에 대한 애도,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조국의 운명에 대한 걱정이 배여든 일기를 보면 그 역시 천재적인 장수 이전에, 끊임없는 갈등과 긴장, 고뇌와 번민 속에서 자신을 다스리며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삶이 주는 묵직한 무게를, 때로는 조국에 대한 신념으로 때로는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견디며, 극복해나간 것이다.

인간 이순신을 발견한 후 그제서야 이순신의 노력이 보였다. 천부적인 재능으로 승리를 이끌었던 그가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언제나 노력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몸소 민심을 수습하고 다독였으며,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며 휘하 군사들의 마음을 다잡기도 했다. 또한 전투를 앞두고서는 철저한 고심을 거쳤고, 부하들을 시키기보다는 몸소 앞장서는 모습으로 모범을 보이고 신뢰를 얻었다. 이순신이 남긴 전설적인 전쟁의 기

록들은 하늘이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 하나 그가 백성들과 함께 만들어간 결과였다.

그리고 이제, 이순신이 당신의 젊음을 내게 말한다. 나는, 일상을 마비시키는 전쟁이라는 무서운 폭력 앞에서 막중한 책무와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며 그것을 피하지 않고 살았노라고. 나의 젊음은,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뜨거웠다고. 눈에 보이는 전쟁과 같은 실체가 아니라, 내 눈 앞에 던져진 거대한 벽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만 같은 답답함을 가지고 있던 내가 답한다. 알겠노라고. 이 답답함을, 이 시대를 뚫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나가면 결국 내가 조금은 더 성장해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번뿐인 젊음을 어찌할 것인지 답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그 어려움을 극복해나가고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성숙해진 ‘나’라는 것을.

나는 다짐한다. 내게 던져진 이 질문에 끊임없이 고민하고, 답하고, 뜨겁게 부딪히고 뚫고 나가려 노력하며 번뇌 속에서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겠다고. 난중일기, 그의 치열하고도 존경스러운, 뜨거운 숨결을 덮으며 나는 또다시 내게 묻는다.

“이 한번뿐인 젊음을 어찌할 것인가”